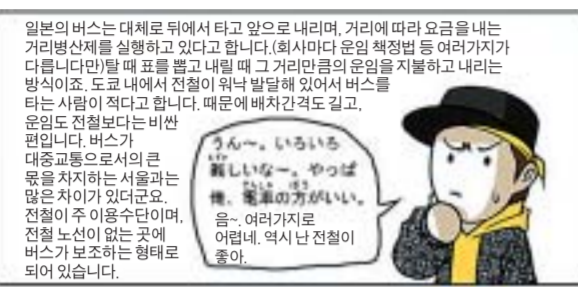


WEBTOON

12. 버스



<배워봅시다>
 버스(巴士): 버스
 かく(와쿠) : 기쁨, 기대, 걱정 등으로 마음이 설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근두근, 울렁울렁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色(いろ) : (이로이로) 여러가지, 갖가지
 方(ほう) : 방위, 방향이라는 뜻. 여기서는 둘 이상의 사람 중 하나를 가리키는 ~쪽, ~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何(なに) : (이로이로) : 마침내, 드디어 : とうとう
 出発(しゅっぱつ) : 출발 到着(とちやく) : 도착
 もじもじ(모티모티) : 태도나 동작이 분명치 않고 느린 모양.
 어물어물, 우물쭈물
 迷惑(めいわく) : (메이와쿠) : 꽤, 귀찮음, 성가심

디자인 최소미

군대 별사탕? 원조는 이탈리아에 있네

200년 된 사탕기업 펠리노 회사에 가보니...

Trev BLOG

봄꽃이 아닙니다. 형형색색의 꽃 모양을 한 별사탕입니다. 이탈리아의 산골 도시 솔모나는 서양식 별사탕인 콘페티(Confetti)로 유명한 곳입니다. 콘페티는 이탈리아에서 결혼식이나 유아 영세식, 첫 영세제 등의 잔치 때 쓰이는 장식용 사탕입니다. 나프탈렌을 담은 이 별사탕을 저는 죄다 먹어치워 집에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가게에 가면 장식용이 아닌 이런 순수한 식용 콘페티를 살 수 있습니다.

콘페티를 만드는 펠리노 회사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펠리노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콘페티 회사입니다. 설립자 가족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회사가 처음 세워진 것은 1783년이니 독일의 약성 베도벤이 불과 13살 때 탄생했군요. 18세기, 정말 옛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장 안에는 상당히 큰 사탕 산업 박물관이 있습니다.

교황·국가원수·할리우드의 스타들이 다녀간 기념 사진도 여기저기 보입니다. 나도 방명록에 한글로 멋지게 사인을 남겼습니다. 알브레흐트 뒤러의 잉크화를 연상시키는 18세기 그림 책에는 당시 사람들이 별사탕을 만들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사진 1) 넓직한 솥을 그네에 달아 솥불 위에 올리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사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쓰던 기구들이 옛 모습 그대로 전시돼 있습니다.(사진 2)

그러던 것이 19세기 산업혁명의 분수령을 넘으면서 장비가 현대화되고, 또 20세기 들어 전기 보급과 함께 자동화되기 시작한 흔적이 보입니다. 솥을 수평이 아닌 45도 각도로 기울였고 사탕은 이제 사람 손 대신 모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당시는 전자공학이 없는 강전(強電)의 시대여서 리모컨 대신 목직판 두개비집을 움직여 기계를 켜고 끄는 모양입니다. 어느날 합선 사고가 일어났는지 기계의 버팀목 노릇을 하는 한쪽 구석이 화재로 꺼졌을 때 들어간 자국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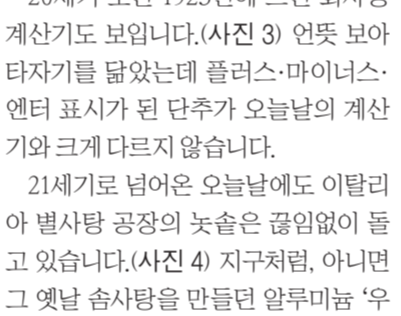
별사탕을 만드는 이탈리아 펠리노 회사.



1. 당시 별사탕을 만들던 모습



2. 현대화된 공장 내부



3. 리모컨 대신 목판 두개비집을 이용해 기계 작동



4. 별사탕



5. 리모컨 대신 목판 두개비집을 이용해 기계 작동



6. 리모컨 대신 목판 두개비집을 이용해 기계 작동

20세기 초인 1923년에 쓰던 회사용 계산기도 보입니다.(사진 3) 언뜻 보아 타자기를 닮았는데 플러스·마이너스·엔터 표시가 된 단추가 오늘날의 계산기 그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로 넘어온 오늘날에도 이탈리아 별사탕 공장의 솥은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사진 4) 지구처럼, 아니면 그 옛날 솥사탕을 만들던 알루미우

주술'처럼 말합니다. 200~300년 전통이 오늘도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별사탕 맛이 나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 집 공주 동생이도 분홍색 사탕 불지를 소중히 두 손에 꼭 쥐고 만족해 합니다. 우리 동생이를 울리지 않고 요것을 조금 빼앗아 먹어야 할 텐데...

마테우지(blog.joins.com/matteuzzi)

비엔나에는 비엔나커피가 없다

오스트리아 마부들이 마시던 커피에서 비트 생크림 듬뿍 넣은 아인슈퍼너 커피를 의미

Info BLOG

당신이 비엔나(원명은 빈, 이하 비엔나)에 도착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비엔나커피를 주문하면 웨이터는 다시 한번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물어 볼 것이다. 비엔나에는 비엔나커피라는 메뉴가 없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우리나라에서 비엔나커피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비엔나커피의 정체는 아인슈퍼너(Einspanner) 커피다.

아인슈퍼너 커피는 카페로 들어가기 어려운 마부들이 한 손에 말고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설탕과 생크림을 듬뿍 넣은 커피를 마차 위에서 마시게 된 것이 시초다. 우리나라에 비엔나커피로 알려진 아인슈퍼너가 처음 소개된 것은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설과 1980년 '더 커피 비너리(The Coffee Beanery)'를 설립한 미국인 조앤 사우가 내한하면서 커피에 생크림과 계핏가루를 얹은 아인슈퍼너 형태의 커피를 선보인 것이 효시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아인슈퍼너는 사전적 의미로도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와 마부를 뜻한다. 당시 비엔나의 사회상과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비엔나 사람들은 아인슈퍼너·멜란지·에스프레소 등과 같이 커피를 오래 볶아 진하고 풍부한 향을 내는 타입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비엔나커피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시작됐다.

1683년 합부르크(오스트리아)는 오스만투르크(터키)

와의 비엔나 전투에서 세르비아인 정찰병 콜시츠키(Kolschitzky)의 활약으로 패한 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다. 승리의 공로를 인정받은 콜시츠키가 전리품인 커피를 하사받았다. 비엔나에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다. 이 후 1685년 그리스인 요하네스 테오다트(Johannes Theodat)가 비엔나에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열면서 비엔나커피의 역사는 시작된다.

비엔나의 커피하우스는 비터마이어 시대(1800년대 초)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다. 내부에 벨벳·상들리에 등으로 고급스럽게 장식된 카페에는 신문이나 당구대 등이 비치돼 있었고 곧 정치·문학·예술인들의 모임 장소로 각광 받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에는 많은 커피하우스가 문을 닫았지만 90년대로 접어들면서 1156곳의 카페와 984곳의 에스프레소, 222곳의 카페 겸 제과점, 89곳의 고급 레스토랑이 비엔나 사회에 새로운 커피하우스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90년대 비엔나의 커피 업계가 균용할기 시대를 거친 뒤 2001년 12월 미국계 스타벅스의 비엔나 진출을 계기로 비엔나커피하우스는 모던과 올드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2001년 스타벅스가 비엔나에 진출했을 당시 오스트리아 언론들은 미국 커피가 비엔나를 점령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비엔나의 올드 카페들은 이전보다 더 화려한 시대를 보내고 있다.



비엔나 커피

대형 박물관에 '마빡이'가 있다?

머리 치는 듯한 고대 이집트 유물에 '깜짝'

Photo BLOG

대형 박물관의 고대 이집트 '마빡이', 마빡이의 역사가 최소 2500년은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이트 모던 갤러리의 관장인행 마빡이.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갈뻑이·다뻑이·마빡이. 세계적인 디자인 갤러리인 테이트 모던에서도 격찬한 마빡이 시리즈 포즈.

영국 byontae@fiatlux.egloos.com

발칙 혹은 대담

6인6색 섹시 토크 릴레이

김작가 '섹스올로지' / 아무 일도 없었다. 만난 적도 없었다. 그저 문자나 몇 통 주고받고 방명록에 글이나 남긴 게 전부인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정이 생겨서 앞으로 연락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시작이 언제였는지 알 수 없는 관계란 끝도 알 수 없다. 흐지부지 소멸하게 마련이다. 스쳐 지나가는 관계에서 인연을 접자는 통보 따위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했다. 아니, 해야만 했다. 남자 친구의 강요 때문이었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문자를 주고받는 걸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질투란 평범한 사람들의 본성이니까. 그녀는 반발했다.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통보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내였다. 연애 주도권의 칼자루를 한시도 손에서 놓아 본 적이 없었다. 무릇 남자란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며 리드해야 한다는 철학이야말로

"연애 독재자여, 역사에서 배워라"

로 그가 가진 이성관의 핵심이었다. 그렇지만 보호의 정도가 너무 강했다. 여자 친구의 이메일과 메신저 비밀번호를 알아야 직성이 풀렸고, 자기 가까운 사람만 만나야 마음이 놓였다. 반발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자기가 그만큼 여자 친구를 사랑한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런 자신의 앞에서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다니 속칭 대상이 되고도 남았다. 그래서 그녀는 애인의 앞에서 모든 문자를 지우고 전화번호까지 없애야 했다. 메신저 주소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그가 이미 삭제한 후였다. 그는 이런 억압을 통해서 관계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안보가 최우선인 시절이 있었다. 독재자들이 다스리던 때다. 그들은 강압적 통치를 통해서 사회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무력으로 반발을 제압하며 공포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웠다. 이것이야말로 효율적 안보의 도구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렇지, 이렇게 얻어진 복종은 오래 가지 못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스프링이 튀어오른 것이다. 독재의 결과는 모든 불기 아니던 또 다른 쿠데타였다. 망명하거나 암살당하거나 둘 중 하나가 무력을 사랑한 독재자의 끝이었다. 진정한 평화는 강(強)이 아닌 덕(德)으로 다스릴 때 찾아온다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 결과이다. 찍어 누를수록 반발력이 커진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흘려 배운 대가다.

연애의 독재자가 되고자 한 그도 같은 길을 걸고 있다. 그의 여자 친구는 일단 그의 명령에 따랐다. 마초의 권위와 억압이 일단 승리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여자 친구가 미리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전날 귀띔한 것을, 이번 일로 오히려 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졌다며 다른 연락 방법을 알려 준 것을, 신뢰를 배반함으로써 이별보다 더 큰 복수를 하겠다고 그녀는 불타올랐다. 도를 넘어선 폭정과 압제에 피어오른 모반의 불씨다. 그녀의 남자들까지 모두 자신의 사랑으로 만드는 덕을 발휘했다면 피어오르지 않았을 불씨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내여, 역사의 결과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라.

김작가는?
대중음악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남녀 애정 문제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noisepop@hanmail.net

서울 인간 경기 ☀️ 30% 10-20°C	강원 영서 ☀️ 30% 7-18°C	강릉 영동 ☀️ 30% 11-22°C	Weather & Life
전북 ☀️ 30% 7-21°C	충북 ☀️ 30% 9-21°C	대구 경북 포항 ☀️ 20% 9-23°C	4월25일 (음력 3월 9일)
광주 전남 ☀️ 30% 7-21°C	대전 충남 ☀️ 30% 9-21°C	제주 ☀️ 20% 10-19°C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났습니다. 전국이 흐린 후 아침에 개강합니다.
부산 경남 ☀️ 20% 11-18°C	남방:40%	새자:90%	외출:60%
세탁:50%	서울-경기-강원-영서 12-17°C	강원-영동 13-24°C	충북-충남 10-20°C
전북-전남 7-18°C	대전-충남 10-21°C	대구-경북-포항 7-20°C	경북-경남 12-19°C
제주 8-20°C	부산-경남 11-22°C	제주 8-21°C	12-20°C
11-22°C	12-20°C	13-20°C	14-20°C

www.isplus.com

1969년 9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74-5 1999년 1월 1일 국유채도 특별금 승인 제 166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쇄인 장중호 (주)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빌딩 16층
편집인 박종권 구독료: 한달 1만원, 1부 500원

연락처 02-6363-1313 편집국 FAX 02-6363-1386 고객센터(국문 상담대행) 1588-3600 광고문의 02-6363-1366

유선 제트그립 등산화 파격가 할인!!!

TV홈쇼핑 판매가 39800원 — 19800원
300원 한정 등산화 양말 증정

스프링을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3사의 레포 초 전문 브랜드 '유선(USSN)'이 2007년 정해낸 맞이 하여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시작한 다. 이미 현대홈쇼핑에서 고객 만족 우수상품 1위에 선정되어 그 제품성을 인정 받은 유선 등산화를 홈쇼핑보다 무려 2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가이마다 300원 한정으로 등산화 양말까지 증정한다.

유선 등산화는 합성소재에 고급등산화에 만 사용하는 천연 소가죽 소재와 라텍스 깔창을 채택하여 산행시 발생할 수 있는 피로감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400g대의 초 경량화를 실현하여 여성이나 노약자분들도 쉽게 산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천연고무 바닥은 바위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게 설계되어 충격흡수는 기본이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다.

주문전화 080-701-7777 (해설비 별도) 701-7777 (해설비 별도) 고객센터 ismd@

▲사은품